



도연아 중학교 3학년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날씨 맑음 ☀

2024년 05월 20일
요일 (총합)

과 사망

유관기관과의 협력체
가장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기후탄력적 보건 시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
부 '질병관리청'도 기
건강문제에 대비하고,
가능한 기후탄력적 보
축하기 위해 올 4월4
5장기계획'을 수립해
: 아울러 '보건의료기
2에 따라, 2021년 제1
평가를 실시해 공표
자 평가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다.
리정장은 운영·현행질
주에 의한 질병발생연
감사하기 위해 응급실
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관련 질환 발생정보
기라며, "교육·홍보 자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김안성 기자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WHO))
: 보건·위생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전문기구
-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 기후변화와 관련된 권위있는 평가를 제공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와 UN 산하 과학 전문기구 구성된 조직

[내용 요약]

기후위기는 건강 위기'

인간의 건강은 폭염이나 가뭄, 해수면 상승, 극심한 열파 등을 통해
인간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초과사망이 2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2022년 제 1차 기후보건영향평가에 의하면 폭염, 가뭄,
대기오염, 감염병 등으로 인간의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친다.

'노년인구 증가, 기후변화 피해 증가'

취약계층(기후변화의)인 노년인구의 증가로 노년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련 건강피해
의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의 의하면 온열질환 응급실 시범지역
10대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자·사회적 취약계층이 해당한다.
→ 고령자,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 ↑

'기후위기에 대한 노력'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 대비, '기후보건 증진기계획' 수립 (질병관리청)
- 교육·홍보 자료를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문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소통 강화

[느낀점]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생물체의 서식지 등은 파괴되지만, 인간의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는
이 기사를 보고 엄청난 심각성을 느꼈고, 이 기후변화 문제로 생기는 다양한 현상·상황의 심각성도
느꼈다. 다양한 상황을 취약계층의 고령자에게 가장 많은 피해가 있는지는 몰랐고,
현재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폭우 등 이상 증세(날씨에 대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꼈다.



→ 분리수거하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후변화'가 발생한다고 해
알맞은 분리수거를 하였다.
이 작은 실천으로 인해
부족하기도 하였고 '왕실속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관심한 분리수거를 보고 화가
나기도 하였다.





2024년 6월 기일 금요일 날씨 흐림

LG 전자

• 토종 벌꿀을 늘리고, 사과에 나무를 심는 등 세계 곳곳에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 LG전자가 스페인 법인 스페인 및 포르투갈 주요 지역 이룩과 퇴비, 씨앗 등을 통해 날이출을 높은 사과 품질을 생산 선명 레싱 캠페인 '스마트그린' 진행 (Smart Green Trees)

나무를 심으면 좋으심

- 나무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된다.
- 공기를 정화한다 - 나무는 아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생산하는 식물만 아니라 산소를 정화한다.
- 나무는 기온을 낮춘다 - 도시 지역이 과도한 열, 온도를 초월하는데 도움을 준다.
- 야생동물들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과도한 개발로 인해 모든 종류의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는데 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만든다
- 건강에 도움이 된다 - 나무는 '폐톤치드'를 가지고 있어, 혈압과 불안감, 통증, 근육 증가 등 인간의 건강에 좋다.

나의생각: 대기업 LG전자가 이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나무를 심는 ESG를 실천하고 있음이 좋았다. 이런 대기업이 환경보전에 앞장서서 이런 제도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또 나무를 심으면 기후위기에 대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와닿았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 나무를 심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기회가 된다면 LG 알라그린 캠페인(LG Yalla Green), 이소코케어(Optimism you feed) 등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원 세계에 이런 캠페인 알리고 싶다.

스마트그린 트리(Smart Green Trees)

헤럴드경제

스페인서 꿀벌 기르고 사과

스페인 아베리아 꿀벌 350만마리 증식 식수 활동 사육·인도·인사 등에 확대 미래세대 위한 희망콘텐츠 확산 캠페인도

LG전자가 토종 꿀벌을 늘리고 사과에 나무를 심는 등 세계 곳곳에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LG전자는 자사 스페인 법인이 환경적 요인으로 급격히 감소 중인 아베리아 꿀벌을 1년에 약 350만 마리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스페인 법인은 지난해부터 식물의 번식과 육성을 돕는 '스마트그린 비즈(Smart Green Biz)'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스페인 내 모든 식물의 수분(授粉)이 가능한

유일한 토종 꿀벌인 '아베리아 꿀벌' 양육(왼쪽) 사육(가운데)에서 현지 임직원들이 직원들 진행되고 있다.

LG전자는 ESG 비전 '모두의 더 나은(Better Life for All)' 실현을 위해 해외 법의 자체 활동 외에도 소속 국가의 탄소 저감

기후위기에 대한 깊은 슬픔
→ 불필요한 불은 끄기



2024년 6월 21일 목요일

날씨 흐림

주요 핵심 키워드

· 아직 친환경제품이라고 속이는 행위, '그린워싱' 이 '위장친환경주의' '친환경위장술'

[그린워싱]

· '그린워싱'이란 무엇인가요?

- 녹색경험을 뜻하는 Green과 세탁을 뜻하는 Washing의 합성어로 위장친환경주의 또는 녹색임 마케팅을 의미한다.

→ 상품 포장지 등에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환경 파괴나 오염물질 배출 등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그린워싱'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①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 같이 포장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줌

② 거짓 광고를 함으로써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피해를 준다.

③ 각주온상호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함

· 이 '그린워싱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 허위 광고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와 현실법안으로써 관련법안 강화

· 다른 기업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청회 등 제3자 같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그린워싱'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카콜라 플라스틱 병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하겠다고 하며 각종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이미 친환경을 꾀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하여 세계 최악의 플라스틱 브랜드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의류브랜드 H&M - 여성복 100여벌을 지속 가능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으며 재생 플라스틱 병으로 만들었다는 환경적 이점을 과장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의 소재도 퇴색연료에서 파생됐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 '그린워싱' 사례에 해당한다.

느낌정: 많은 기업에서 녹색기침할 줄 모르는 모양이다. 실제로 의류브랜드인 H&M에서 친환경 옷이 많아 많이 구매하기도 하였고 애용하는 의류 브랜드 중 한 곳인데 그린워싱을 한다니 좀 충격적이었다. 이 밖에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기업에서 그린워싱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전 세계에 이런 상황을 알리 멈추게 하고 싶다.

구매할 때는 친환경제품이라서 매우 기뻐했는데 그린워싱을 해 기분도 불쾌해졌다.

→ 길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2024년 05월 28일
24면 (본학)

짓말



빈 플라스틱 병이 쌓여 있는 쓰레기통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을 83%는 7%가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을 구입하겠다고 답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국내 마트에 나온 친환경 제품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에도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환경상환시·광고 관리제'에 따라 제15조를 보면 재발용 플라스틱을 함 있다고 광고하면서 해당 상품의 양이 10% 이상 감소하지 않아 재발용 플라스틱과 내용물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분류할 수 있는 제품 광고는 제재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기업 이미지 광고 등에 쓰이는 그린워싱은 그 기준이 모호해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가들은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의식만 보고 있다. 이윤의 연하대 소비자들과 '최근 가장 신뢰가 중요시되는 현상에 소비자들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해니로 친환경, 환경보호가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나서 주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효과가 있고, 해당 기업은 '착한 기업' 좋은 기사는 이미지도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 분석했다.

윤하 기자



장려상

도연아 중학교 3학년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날씨 맑음

<탄소저감>

원인: 석회석과 부원료인 점토 등을 고온에서 구우면 시멘트
변태물질인 '클링커'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성로(원로)
를 145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한다. 이때 대량의 이산화탄소
가 발생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혀준다.

* 석회석은 시멘트 제조 시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해결책: 석회석 사용량을 줄이고 혼합재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탄소저감 방법이다.

결과: 50년전에 사용된 시멘트가 다시 돌아와서 재료가 되
다양한 혼합재 사용용 통해 시멘트에 들어가는 클링커의
비율을 기존 95%~97%에서 66%로 낮추었다.

뉴스속보!

유럽시멘트협회 회장은 "유럽은 탄소중립 범위로 클링커 사용 통제를
통한 저탄소 시멘트 확대와 순환자원 재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확대하려고 함. → 반여에 온실가스라는 탄소저감을 하기 위해 선택
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들어 찾아보았다.

우리나라는 대나무를 많이 심어(대나무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큰 도움을 줌) 탄소저감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일반 수종보다 훨씬 많아 리사이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를 활용이 가능

<나의 생각>

이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우리나라도 유럽 같이 이런 탄소저감 실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내가 할 수 있는 탄소저감 실천책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 중 환경영양제
에서 제일도 심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도전했다. 그래서 일상생활속에서
배달용기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아시아경제 ^다 익리

"50년 된 페콘크"

그리스·오스트리아 시멘트 공장 가보니

그리스 제2 도시인 테살로니키에서 차로 35분 거리에 위치한 타이탄(TITAN) 에프카르피아 공장. 이 시멘트 공장은 주원료인 석회석을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탄소저감을 위해서다. 석회석과 부원료인 점토 등을 고온에서 구우면 시멘트 반제품인 '클링커'를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성로(원로)를 145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한다. 이때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 공장에선 시멘트 제조 시 혼합재 사용량을 늘려 클링커 사용량을 줄였다. 혼합재 사용이 제한적인 국내 시멘트 업계와 대비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이곳에서 만난 칼로게라코스 안젤로스(Kalogerakos Angelos) 타이탄그룹 전체 공장 총괄책임자는 "석회석 사용량을 줄이고 혼합재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 탄소저감 방법"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석회석은 시멘트 제조 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시멘트 1t

에프카르피아-매너스도프 공 혼합재 늘려 클링커 사용량을 페비닐 등으로 화학연료 대신 이산화탄소 절감 석회석 줄이

을 제조하면 통상 약 700kg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 가운데 클링커 산을 위한 석회석 사용으로 발생 이산화탄소가 420kg으로 전 60%를 차지한다. 에프카르피아 공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테살로니키에서 발생하는 페리트를 비롯해서 클링커 대신 사용이 있는 다양한 혼합재를 시멘트 원 사용하고 있다. 혼합재 비율은 30% 정도다.

혼합재를 통한 시멘트 산업의 저감 노력은 20일 방문한 오스트리아 인근출심(FOLCIM) 시멘트 매너스도프 공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활용천터 문을 열자 벽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저감 실천

- 무포장 제품 구매
- 대중교통이나 띠이어(자전거) 이용
- 허투루 버려 캐서리기
- 양초는 풀러고 불기
- 재활용 분리배출 꼼꼼히 하기
- 김바구니, 텀블러 등 이용하기
-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나의 의견) → 나 환경영양제를 하는 동안에 탄소저감 실천해 'v' 표시 할 것이다.

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갈 것이다.

→ 배달용기 사용 X
(플라스틱 사용 X)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날씨 ☀️

4년 07월 08일
02면 (종합)

〔지역축제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량(용기 사용량)이 증가했다〕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구축으로 일회용품 컵 1.5톤 감소

대구광역시 지역축제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많아 사용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으로 개선을 위해 경북부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과업사업'에 신청해 실행되었다. 이번 '환경정착제'를 계기로 더욱 더 확대하고 축제기간 동안 다회용 컵 16,000개를 비롯한 3종의 다회용기 85,000개가 보급되며 이를 통해 '공급→회수→세척→재공급'되는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다. 그리고 컵 세척을 위한 간이 고압 세척기도 축제장 여러 곳에 설치해 관람객들이 자신이 사용한 컵을 세척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나는 지역페스티벌(지역축제)을 SNS와 친구, 어른들에게 자주 들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의 양이 증가하고 급증된다. 왜 지구 플라스틱을 사용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지역페스티벌(지역축제)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가능한 가벼운 컵을 만들어야 하므로 플라스틱을 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또 가능한 빨리 만들 수도 있어서 편리한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페스티벌에 오는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면 엄청난 환경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회용기 사용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다회용기를 쓰면서 관람객들의 불편하고 불쾌함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구축으로 엄청난 일회용품 사용을 감소했지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든 생각이 집에서 쓰는 용기를 가져와 쓰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면 생각을 했다. 비록 무거운 용기와 큰 용기를 들고와야 하는 귀찮음이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미래에 살아가야 하는 환경을 생각하면 그 귀찮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 환경을 리듬에 한다.



과 관람객들이 더
1727@imaeil.com

다

일본 방송사인 N은 지난 4일 페스티벌 현장다.제로 거둬나기 순환 시스템'도 특별 참관객들, 다회용기, 공급·회수·세척·용기 순환 시스템, 플라스틱 컵, 대구시는 울전용컵 및 식다.
xxt@imaeil.com



매트나 음식장을 갈때 에코백을 사용하여 음식이나 용품을 담아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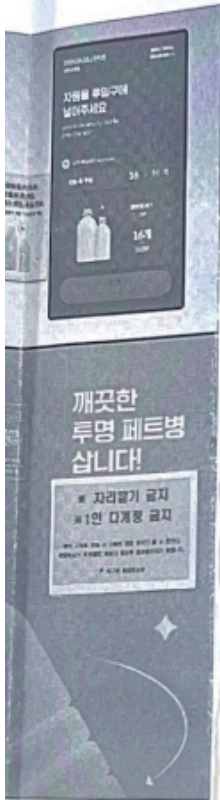




도연아 중학교 3학년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날씨 ☀

2024년 04월 16일 07면 (사회)
벌고... '인기'



명 페트병을 넣고 있다. 전영호기자
년간 5천1의 페트병을 수거했
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
참여예산 등 설치 요구가 이어
년에 추가 설치 지역을 모집하
수퍼빈이 없는 동구청은 올 상반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동구청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할 후
3월 등을 살피 내년도 예산을
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수퍼빈 : 쓰레기를 돈과 자원으로 만드는 순환자원 재활로봇
4차산업기술을 활용함 로봇으로 개인이 쓰레기를 거래하여 긍정적 보상을
얻고, 쓰레기를 선별 수집하여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하는 수퍼빈만의 제언이다.

수퍼빈 포인트?

투명 페트병이나 음료 1개
→ 10포인트 적립
수퍼빈의 1포인트 = 1원
페트병 1개에 10원!
음료캔 1개에 10원!
쓰레기가 돈이 된다니!?

탄소배출을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개인적

그때 수퍼빈이 떠올랐다. 수퍼빈은 유튜브나 많은
SNS에서 탐닉씩 떠서 보게되었다. "수퍼빈은
순환경제를 실현시키고 새로운 리활용 유통을
강화하여 깨끗한 가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힘께는 미래에 후손들에게 밝혀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그때부터 흥미를
느끼게 되어 수퍼빈이 계속 머리 속에 맴돌았다.
- 수퍼빈의 기사를 보게 된 계기

수퍼빈의 역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수퍼빈'을 통해 수거된 페트병 115.74톤에 달한다
500mL 페트병 1개당 무게를 20g으로 환산하면 한 리터당 약 578안6립
132개의 페트병이 분리수거 되었다. 매월 평균 36만개의 투명 페트병이
수거될 정도로 이용수가 늘고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수퍼빈'을 유튜브나 많은 SNS에서 검색해보았고,
길을 지나가다가 본적도 있다. 수퍼빈을 보았을 때, 그때 든 생각은 우리집
등대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수퍼빈 기계가 확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가족들께 수퍼빈을 들어보았냐고 물어보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수퍼빈의
근거를 몰랐으며 친구들도 수퍼빈의 근거를 몰랐다. 여기서 남 심자성을 느끼고
수퍼빈의 근거를 알리기 시작하였고 수퍼빈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수퍼빈의 강점은 물론 탄소배출로 인해 기후 위기가 발현되는 현시대에 조금이라도 기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싶었다. ^{한다. 자원감상} 결국은
그런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활동을 습관화 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30포인트 더 적립하러 가야지~



수퍼빈이 있는 동구청은 올 상반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동구청은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할 후 3월 등을 살피 내년도 예산을 가 확충하겠다





도연아 중학교 3학년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날씨 ☀

2024년 02월 19일 07면 (종합)

도시락

- 포장음식을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다. 하지만, 도시락은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 하루의 도시락사용은 플라스틱(일회용품) 용기를 몇 배나 줄일 수 있음

화사에서 실천하기

- 구내식당에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일회용품사용을 자제) 안내판을 붙인다.
- 프레젠테이션에서 화사 사람들에게 개황용이 가능한 용량과 그렇지 않은 용량을 구분해 보여준다.

주요와 링크 절약하기

- 링크 줄이 사용 X → 100% 재생의 사용 O
- 컴퓨터 프린트 설정도 양면 인쇄가 되도록 설정한다. → 링크 ↓

쓰레기통

- 화사 책상위에 올려놓은 쓰레기통을 치워주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경우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일반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직접 분리수거함에 분류해서 버린다.

이동수단

- 자동차를 이용하며 걸어서 걸리는 시간보다 짧게 걸려도, 2만원 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된다.
- 걷기,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테이크아웃

- 음식을 주문할 때에는 용기를 가져와 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포장한다.
- 음료를 포장할 경우 텀스를 이용해 포장한다.

도시락

1인칭, 깨끗한 상 용기를 가져가면 잊어주지도 않을 수 있다.

담아다, 걸어서 30분 걸리는 거리는 자전거로 10분이면 도착한다. 짧은 거리일수록 걷거나 자전거 타는 시간을 늘려보자. 자동차는 가고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

경구나 자전거 타기는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30분 원적 덕분에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효과를 본다. 자가 필수인 곳이라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갈 때는 30분 규칙을 자주 적용해보자.

카풀 일명표를 만들어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과의 탄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카풀 일명표는 직장 내 워미 활동 동호회 모임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워미 활동을 할 구성원을 모으는 용도로 말이다. 혼자 다니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다니면 운동효과가 훨씬 제이있다.

도로에 차가 적어지면 교통 체증도 줄어든다. 도로에 있던 자동차들이 갑자기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해봐, 아마 운전할 맛이 나지 않을까? 느긋하게 달리면서 연비도 절약된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 계속 기다려야 할 때는 번복하는 것은 꾸준히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보다 더 많은 기름을 소모하고 더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자. 내가 사는 지역에는 배, 기차, 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다.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하다 보니 원하는 곳은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수 있다.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과 운행 시간을 찾아보자. 자신에게 맞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70인성 기차

로 30분 미만 걸 걸 걸을 세우는 좋은 이동수

일회용품, 텀블러 사용 등 많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겠다. 이런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게 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 나의 작은 행동으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쉬운 습관을 쉽게 바꾸기 어려웠고 일상생활속에서 꾸준한 실천을 하지 못해 열심히 캠페인하기 못하라는 생각도 들곤 했다. 그래도 이런 습관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가고 있다. 텀블러, 텀블러 등 텀블러를 사용할 때, '오일도 절감된 텀블러를 보냈구나, 텀블러 지고 텀블러'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텀블러 실천 방법은 다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소중한 귀환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텀블러를 위한 삶을 위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겠습니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거절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다.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음식을 주유할때나
음식을 조리하여 보관할때
도색약품들을 매번 사용하셨다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이 예기치 않은 유해로 음식을 잃고 있다.

그 원인의 주범은 "라면국물"이다. 최근에 한라산에서 라면국물을 먹는 것이 유행이 되어 점점 증가되고 있고 라면국물을 먹고 남은 국물을 아무데나 버리는 일이 많아짐

라면 국물이 왜 주범?? 한라산에 버려지는 라면 국물이 하루에 약 60~120L에 이른다고 한다 라면국물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함유량이 매우 높다. 영분이 많은 약제는 도양에 스며들면서

식물을 알라죽게 하는 최본안 아니라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라면국물 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악영향을 일으

제주에 있는 '한라산'이 동산 라면 국물로 인해 사멸을 일으키고 있어 가파른 라면 국물로 인해 한라산의 큰 물은 이곳에 사는 동산과 받고 있어요

한라산 등 국립공원에선 자연을 제외하면 휴사음식을 만들거나 간판을 들고 오거나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지 마세요. 이런 음식물 중 버려진 것이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 라면 국물을 산에 합부로 버리지 말고 버리는 음식물 때문에 산의 생태 국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불순물이 많아지는 생물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오소리, 주머니 등 야생동물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킨다 한라산에선 하루 평균 약 60~120L는 식물을 처리할 위해 약 120000kg의 국물을 따로 버릴 수 있는 용량이 국물에 버려지는 음식이 부족해 될 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국립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진행하기 힘들다면 처음부터 스프와 물을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는 토론왕 - 선배야

말라예인 '산에서 라면 같은 음식을 섭취 필요하게 생수면으로는 부족하다는 고민이 느껴지면 근거를 들어 밝혀주세요

한라산 국립공원에선 자연을 제외하면 휴사음식을 만들거나 간판을 들고 오거나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지 마세요. 이런 음식물 중 버려진 것이요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 라면 국물을 산에 합부로 버리지 말고 버리는 음식물 때문에 산의 생태 국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불순물이 많아지는 생물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오소리, 주머니 등 야생동물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킨다 한라산에선 하루 평균 약 60~120L는 식물을 처리할 위해 약 120000kg의 국물을 따로 버릴 수 있는 용량이 국물에 버려지는 음식이 부족해 될 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국립 남기지 않기 캠페인을 진행하기 힘들다면 처음부터 스프와 물을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야생동물(까마귀, 오소리, 족제비 등)들이 국물 냄새를 맡고 오던던 음식을 찢어먹고 먹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체내에 쌓이면 생식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먹이사슬까지...

해결책 한라산국립공원 권역은 라면 국물 수거를 60L 컨테이너와 음식 쓰레기 2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국물 염분 탓에 음식 쓰레기 분해 미생물이 죽어 음식 쓰레기가 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토양 오염으로 이따는 악취가 되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책으로 종이 돌기 시작했다.

항상 제주도에 여행을 가면 한라산에 방문하여 등산하고 여쁜 풍경을 바라보며 힐링을 한다. 근데 한라산에 등반한 사람들이 라면과 먹고 남은 라면 국물을 땅속에 버리는 바람에 아름다운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큰 충격을 받았다. 많은 분들이 가시를 보고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며 작은 라면국물 4서 국물까지 아시는 등산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염물질(라면 국물, 피끼리, 음식물 등)을 남기지 않는 작은 실천으로 한라산을 보호해 줄라고 말하고 싶다.

산은 지구의 물 순환과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중의 수증기를 응축시켜 비와 눈을 내리게 하며 산은 바람을 차단하여 기후를 조절한다. 또한 다양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이기도 하고, 산은 육지의 약 25%를 차지하므로 우리가 산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고 책명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어린이동아



도연아 중학교 3학년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날씨 ☀

2024년 02월 02일
17면 (기입)

대변신



멜피의 방향제 '프루티필프'

높은 기능성 외에도 소비관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활용됐던 제품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고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사는 50%를 암투병 소방관에게 주고 있으며,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백화점 팝업스토어, 브랜드 이벤트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방관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라미드 소재로 제작된 평균 3년간 350회 출동 후 다'며 "이를 수거해 세탁 및 분해를 거쳐 업사이클링 패션 상품 생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는 이어 "상품이 되지 못한 아라미드 소재는 다시 단섬유로 전환하여 만든다"며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우유팩 → 방향제 '프루티필프'

'노 플라스틱' 시대에 친환경 대안이고 가장 높은 등급의 필름을 사용하는 우유팩에서 소재를 주물해 활용함

쿨 컵테기 → 청수필터, 비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쿨 컵테기는 쓰러지고 낙담되고 낙담되고 있다.

재활용은 무엇인가?
사용된 제품이나 자원을 수거하고, 재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활용의 큰 이점 다섯가지는 자원보존, 에너지절약, 폐기물줄이기, 지구 환경 보호, 미래 세대를 위한 행동이다.

자원보존과 에너지절약
: 새로운 제품 생산할 때 원료를 채취하고 가공하는 과정은 에너지 소비가 크지만, 재활용은 이미 사용된 자원을 활용하므로 새로운 원료를 채취할 필요가 없다.
폐기물 줄이기 폐기물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매립지에 버려져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한다. 재활용은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

지구 환경 보호
많은 환경오염은 과적 소비와 오염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재활용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킨다.
미래 세대를 위한 행동
각각 가능한 개별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을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재활용 예로는 플라스틱 병 재활용, 종이 재활용 등



종이컵을 재활용해 필름으로 활용해 3에서 매일 쓰이고 있다.



장려상



도연아 중학교 3학년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날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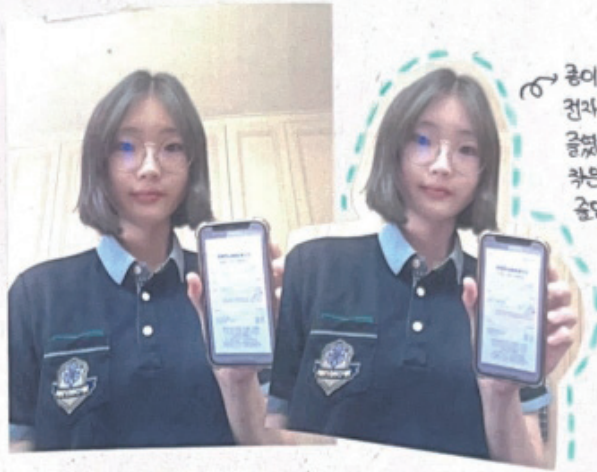
다

2024년 04월 19일
19면 (문화/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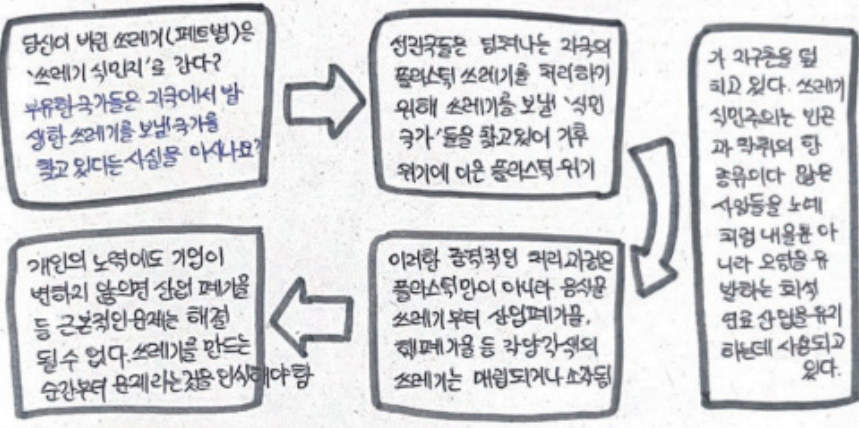


김민준

“노력에도 기적이 변하지 않으면 재기할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없다. 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 여기에는 독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겠다. 저자가 책을 쓰는 과정에 3년이 넘는 집념이기도 하다. 다 산업현장을 마주한 끝에 저자가 결론은 간단하지만 본질적이다. 물건을 덜 사라는 것. 매립부터 까지 인류가 나아가는 쓰레기에 해법들은 사실 그다지 효과가 있진 않 쓰레기 매립장에서 채취된 음식물 쓰레기조차 제대로 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를 놓칠 수는 것. 쓰레기는 만들어 간부터 분해하는 것을 인식하는 1모든 아이기의 중요함이다. 다 한 처음 상점으로 들어가 보자. 고나면 페트병을 분리수거함에 순간 포랏하게 떠오른다. 린단기 소각장과 가나의 이크로, 그 지푸라의 쓰레기산이. 480쪽, 0원. 신재우 기자



공이당수준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당수준을 통해 종이사용을 줄였다.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인다니 너무 후드했다.



나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쓰레기 식민지'로 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보통 사람들은 쓰레기가 재활용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버려진 내 자국 쓰레기를 노동력이 싼과 환경 기금이 낮은 빈곤국으로 실어보내는 상황을 보니 쓰레기, 식민지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삶과 자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에 딱히 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못 느끼지만 계속 이렇게 세계 인구가 쓰레기를 배출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를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쓰레기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자국의 주변에는 쓰레기가 쌓여있을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할 해결책은 선진국은 자국의 쓰레기를 최적으로 처리하고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UN 플라스틱 3약은 정부와 국제 플라스틱 오염 해결책과 쓰레기 오염 해결에 대한 법을 도입하고 기업은 과사용, 과황용 시스템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쓰레기)을 줄이고, 외국 쓰레기에 대한 권의 책임을 강화하며 쓰레기 식민주의에 대한 단상을 잊어야 한다.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시급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